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른 이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은 물론 양심이 마비되어서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태연하게... 라는 뜻이 더 많이 들어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속에 여러 가지로 숨겨져 있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탐욕과 죄악의 문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계 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본문 앞 장(11장)을 참고하라)

나단이 다윗에게 한 비유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인가?

나단의 비유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문제인가?

우리는 객관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지혜롭고 확실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볼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행할 때에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 나단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흥분하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특별하게 뻔뻔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당신과 나는 조금만 숨길 수 있다면, 드러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어떤 죄악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며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기도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그래도 제 보다는...”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성실하며, 이 정도는 사랑을 베풀고, 이 정도는 신앙생활도 한다는 생각등이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된 행복의 길, 참된 나눔의 길에 대하여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세리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내리신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고 당신은 예수님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비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렇다 상대적인 비교의 자를 가지고 본다면 그의 말은 분명히 옳다. 그는 세리나 죄인들 보다 훨씬 종교적이며,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 틀림없다. 반면에 세리 역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삶과 행동에 있어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인임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일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는 우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대적인 비교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세리는 좀 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자기를 세울 줄 알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베드로는 참 현실적이고 솔직한 사람인 것 같다. 그에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나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일 때문에 정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고민이요 질문이 아닐까?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으며 왜 그런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용서의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비유 가운데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과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무엇인가?

당신은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데에 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에 예를 써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다. 그러나 나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좀 더 넉넉하고 여유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의 여유가 필요한가? 과연 그런 무한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내가 철저히 용서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갚을 수 있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